

##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대하여

류 준 경 (성신여대)

0.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기에는 필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필자는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적도 없고, 또 방법론과 관점에 대해 어떤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다만 고전소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공부의 과정에서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이나, 나름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본고의 문면을 넘어,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소설 연구방법론과 연구관점에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이다.

1. 근대적인 학문으로서 고전소설이 연구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 업적은 괄목할 만큼 산출되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 이제 우리 고전소설사의 개괄적인 흐름은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래 산출된 연구는 그 이전 50년 동안 산출된 연구보다 몇 배나 많지만 새로운 연구성과라고 딱히 일컬을 만한 연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고전소설 연구가 그 밑변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꼭지점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학계에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다량의 연구성과를 제출하여 밑변만 넓힐 뿐, 연구자들 사이에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꼭지점을 높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쟁점이 마련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이다.

첫째, 가치기준의 부재, 혹은 가치기준의 다양화.

90년대 후반 이래 사회 전반에서 상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이 ‘평등’할 뿐, 상대적인 우열조차도 가리기 어렵다.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연구 관점이 더 의미 있는가, 혹은 더 타당한가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문 연구의 개별화, 파편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은 개별적이며, 파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개별지식이 전체, 혹은 일반과 관련 맺는 방식은 너무나 우회적이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인문학에도 해당된다.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고전소설 연구자들조차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몇 전공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을 따름이다.

1.1 “가치기준의 부재, 혹은 가치기준의 다양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연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곧 “나의 연구(관점)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관점)보다 더 타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때 ‘나’의 관점이 상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연구사적인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처한 현실적 맥락이다.

첫째, 연구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구가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일신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펼쳐나갈 경우,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곧 지금까지 연구의 편향이나 문제점, 한계 등을 수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일 경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연구 경향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근 20년간 발전시켜온 방법론을 추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60-70년대에 새롭게 도입된 방법론적 모색이 70-80년대에 그 뿌리를 내렸다면, 지금은 방법론적 고

민 없이 이미 만들어진 ‘공식’을 다른 작품에 대입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상에 따른 다른 방법론의 고민 없이, 이미 만들어진 방법론을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다른 대상에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대하소설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작품만 다르고, 방법이나 결론은 동일한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처한 현실의 맥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는 사실 연구사적 맥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첫 번째는 연구자로서 기존 연구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연구자가 속한 당대 현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곧 자신이 진행한 학문 활동이 현실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현실과 관련해서 자기의 연구의 상대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문 연구 나름의 체계이다. 학문연구특히 고전소설연구와 현실이 ‘곧바로’ 소통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과도한 사유이며, 학문적 사유도 아니다. 예컨대, 일각에서 진행되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전소설 연구의 여성주의적 관점은 중요하며,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 지난 50년 이상 쌓아온 고전소설 연구의 학문적 두께를 상대할 수 없는 ‘관점’은 단순히 일반적 태도로서의 ‘관점’일 뿐이지, 학문적 관점이 아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고전소설을 이해하고, 새롭게 밝혀낸 결과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더 의미 있으며, 또한 지금 현실에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연구 경향은 오히려 학문을 죽이는 길일 수도 있다. 학문 연구, 특히 고전 연구를 통해 현실에 개입하려면, 겹겹이 쌓인 어려움을 뚫고 미세한 흔적을 복원하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지금 세상은 쉽게, 함부로 말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학문은 더욱 어렵게 말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비평이 아닌 연구는 한마디 발언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이 고전을 비유로서 인용하여 언급한다면, 고전 연구자는 고전이 지닌 의미를 철저한 학문적 과정을 거쳐 복원한 다음 언급한다. 곧 연구자 자신이 행하는 연구의 가치는 현실적 맥

락 속에서 의미 부여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엄밀한 학문적 과정을 거친 연구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치기준의 부재, 가치의 다양화 현상은 토론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의 고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연구사적 맥락 혹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특히 현실과 관련할 경우는 무엇보다도 학문 나름의 독자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1.2 고전 소설 연구에서 쟁점이 부재한 이유는 또한 지식의 개별화, 파편화 현상에 있다. 현재 고전소설 아니 고전문학 연구는 수렴은 없고, 오로지 발산만 있는 형국이다. 연구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 해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제의식에 따라 자신만의 연구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연구는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역시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편으로 논문의 수만 평가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오로지 수량적인 평가만을 진행함으로써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지식(?)만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학회지에 논문을 신기 위해 궁벽한 곳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연구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이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만을 갖추게 되면 학회지에 쉽게 게재될 수 있다. 이제 논쟁이 되었던 주요 작품이나 주제에 대해 치밀한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은 작품을 찾아서 ‘과대포장’하여 논문을 쓰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새로 나온 학회지를 받을 때마다 처음 보는 작품이 왜 그리 많은지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문학사는 다시 써야할 것 같은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소개만 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이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새로운 작품을 연구할 경우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한계는 한계대로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연구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것은 학문 발전상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학의 경우는 그 학문 성격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와 항상 관련을 맺어야 한다.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암묵적으로 일반적인 문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출되는 개별화·파편화된 연구에서 보이는 경향의 문제점은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 생산보다는 사실 발견에 급급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 고민의 부재이다.

사실 발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그것대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발견은 사실만의 발견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지식의 생산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통해, 기존의 사실의 관계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곧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사실 발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굳이 그 사실을 발견하려 했던 자기 질문과 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향 중 하나는 조그마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침소봉대하여 주관적인 인상비평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의 관점이나 방법론이 부재하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소설 연구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 연구에서는 조그마한 사실도 없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방법론적 고민의 부재에 있다. 개별화·파편화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된 파편화, 개별화된 ‘지식’이 ‘참’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기질문이 부족한 것이다.

고전문학에서 방법론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이때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고민된 이유는 동일한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의학적 엄밀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요청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연구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방법론적인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다. 박사논문에서조차 이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서술이 사라졌으며, 개별 논문의 경우 비평적인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3 그렇다면 연구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나의 작품 해석이 상대적으로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되는가.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작품 외부를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 내부를 통하는 것이다.

작품 외부를 통한다 함은 연구자의 작품 해석의 타당성을 작품 외부와 관련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소설 장르별 작자층, 독자층, 향유층 등의 논의가 세밀하기보다는 범박하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작품은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작품이 존재하는 현실 맥락에 대한 더 넓은 통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컨대, 조동일의 「영웅소설의 시대적 성격」을 보자.<sup>1)</sup> 이 논문은 먼저 출판사향을 검토하고,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사회사, 철학사적 조망을 거쳐 시대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물론 이 논문의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연구방법 자체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거쳤던 많은 방법론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사 받을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에서 작품과 그 외부를 소통시키는 통로는

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문학사적 맥락이나 혹은 조선후기의 대체적인 역사, 사회였다.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꼼꼼한 분석과 함께 그와 관련된 문화적 맥락을 복원하고, 나아가 당대의 다른 문학적 경향 속에서 소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변화를 주목하는 인식론적 편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시적인 고찰보다는 공시적인 고찰이 더욱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한문소설을 연구한다면, 19세기 문화적 맥락과 함께 새로운 문학적 경향, 한문 독자층의 문화적 변화 등등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17세기 소설을 연구할 때에는 17세기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맥락, 예상되는 독자층의 구체적 모습, 새로운 학문경향, 소설의 향유가 가능한 서울지역의 문화적 분위기 등과의 관련에서 소설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최소한 자신의 작품 해석이 자의적이지 않고, 타당하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논문의 50% 이상이 직접적인 작품 분석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더욱 더 엄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다. 외부와 참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작품 해석의 논리적 틀인 방법론의 엄밀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곧 나의 해석의 타당성을 외부로 통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해석 도출 과정의 엄밀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소한의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는 대하소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하소설의 경우는 장르론적 관심이 긴요하다. 대하소설의 경우, 작품 외부와의 소통은 방법론적인 우회 의 과정을 상당히 거쳐야만 한다. 단편소설과 달리 대하소설은 구체적인 중국을 배경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영웅소설류에서 나오는 중국 배경은 중국으로서 별반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가상공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대하소설은 다르다. 실제 역사인물이 등장하면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참조된다. 그런데 가문·가정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또 한편으로 조선의 현실이 더욱 강하게 반영된다. 이때, 대하소설의 창작과정에서 작가의식이 어디까지 ‘조선’적인 것이며, 어디까지가 ‘중국’적인 것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또 처—처 갈등과 같이 실제 조선에서 있을 수도 없는

갈등이 마련될 경우, 거기서 읽어낼 수 있는 인식은 쉽사리 당대 조선인의 인식으로 치환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하소설의 경우는 철저히 작품 내적 분석에 기반한 의미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대하소설에서 추출되는 정치인식은 ‘明史’의 독서를 통해 마련된 명나라에 대한 정치인식인지, 아니면 조선의 상황을 빗댄 정치인식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이의 구별은 작품 전체의 해명, 곧 명나라 역사가 작품에 차용되는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있는 이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하소설의 경우는 작품이 생산되는 부면에 대한 장르론적, 서사론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서 작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고전소설 연구에서 방법론적 모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다. 이전 시기의 연구가 고전소설에 대한 개괄적 이해, 혹은 본격적 연구에 앞선 실증적 고증 작업이 우선이었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문학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 연구가 학문 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때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지향하였던 바는 동일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 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표면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 이면의 진실/원리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 시기 이러한 방법론적인 무장을 통해 소설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로 이상택, 김병국, 조동일, 서대석 등을 들 수 있다. 이상택은 심리학의 내면 심리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춘향의 성격을 분석하였고,<sup>2)</sup> 김병국은 융, 프로이트 등의 심리학적 이론, 프라이의 신화비평, 헤르나디의 문체론 등을 원용하여, <구운몽>, <춘향전>, 판소리의 문체적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sup>3)</sup>

2) 이상택, 「<춘향전>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6.

3) 김병국, 「구운몽 연구—환상구조의 심리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68.; 김병국, 「고대소설 서사체와 서술시점」, 『현상과 인식』 16호, 1981.

서대석은 구조주의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군담소설을 연구하였고,<sup>4)</sup> 조동일은 다양한 방법론적 고민을 바탕으로 장르체계론을 수립하고, 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를 밝혔다.<sup>5)</sup>

1960년대 후반부터 모색된 고전소설의 연구방법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이었다. 구조주의 연구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모색된 것은 구비문학 분야에서였다. 전통적인 문학 연구 영역이 아니었던 구비문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욱 엄정한 학문연구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또한 구비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조주의 연구방법이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조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은 우리 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원용되어 고전문학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같은 서사문학인 소설 연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원용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연구방법론과 고전소설 연구가 가장 행복한 만남을 이룬 것은 조동일의 <홍부전의 양면성>이었다.<sup>6)</sup> 여기서 그는 이야기의 형식적, 실질적 기능을 점검하여, 고정체계면과 비고정체계면을 추출하고, 나아가 부분의 독자성이 작동하는 과정을 점검하였다. 특히 비고정체계면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시대적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홍부전>만이 아닌 판소리계 소설 전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을 개발하게 된다.

물론 <홍부전의 양면성>에서 사용된 개념어나 결론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정체계면, 비고정체계면, 부분의 독자성, 이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 등은 우리 소설 나아가 조선 후기 우리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결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시기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이중성’, ‘모순’을 해명한 데 있다. 이중성, 모순 등이 방법론적으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한 두 속성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춘향전> 연구의 과정에

4) 서대석, 「군담소설 출현동인 반성」, 『고전문학연구』 1집, 고전문학연구회, 197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6)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집, 1969.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모순을 지적한 중요한 성과는 최진원에 있다.<sup>7)</sup> 관소리의 불합리성을 “발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상비평적인 성격이 강하다. 연구사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그리 주목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택의 경우 이 이중성을 방법론적으로 해명한다. 목적적 가치, 수단적 가치, 성취동기, 방억동기 등의 개념을 통해 대립의 통일체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sup>8)</sup> 이후 조동일은 <홍부전의 양면성>의 성과를 발판으로 조선후기 근대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으로까지 발달시킨다. 조선후기의 역동적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작업은 대상이 <홍부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측면 또한 존재한다. 민담적 성격이 강한 <홍부전>이기에,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연구 방법론의 갱신에서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조분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3. 이제 이전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과정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대하소설만을 한정하여 살펴도록 한다.

3.1 대하소설 연구는 김기동, 김진세, 이수봉, 이상택 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sup>9)</sup> 그런데 이중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수준 높은 성과와

7) 최진원, 「<춘향전>의 합리성과 불합리성」, 『관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8) 이상택, 앞의 논문.

9)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김진세, 『현씨양옹쟁론기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집』 4, 1969; 김진세, 『이조연작소설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집』 5, 1973; 김진세, 『쌍천기봉 연구』, 『관아어문연구』 1, 1976; 김진세, 『완원회

이후 대하소설 연구에서의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이상택이 주목에 값한다.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을 대상으로 치밀한 방법론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그것을 우리 소설의 맥락에 맞게 적절히 수정, 변용하였다. 그 분석틀의 골자는 작품의 통시적 순차구조와 이원적 대칭구조 분석이라 하겠다. 이러한 순차구조와 대칭구조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의 총체적인 구조를 해명하고, 나아가 <명주보월빙>의 존재론적 특징, 세계관적 기반을 해명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얻어진 세계관과 존재론적 기반은 ‘도선적 초월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설은 서구 소설이론, 예컨대 루카치나 골드만 식의 소설이론으로서의 해명이 불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소설관으로 바라본다면, 이들 초월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작품은 한갓 과거회귀적이고, 보수적인 작품일 따름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에 나타나는 초월미학은 한갓 과거회귀적이며, 기득권의 세계인식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주의적 맥락이 있음을 탐색하였다. 『규원사화』와 <취유부벽정기> 등에서 나타나는 주체적 도가인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소설 관점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기도 하다.

우리 소설 연구의 주요한 영역은 판소리계 소설, 한문단편 소설, 영웅소설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 영역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진 ‘근대’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배층의 새로운 인식, 변화한 조선후기의 현실, 피지배층의 새로운 문화 등과 관련된 소설이 주목 받은 것이다. 그리고 소설이 지닌 ‘상업’적 성격과 관련하여 방각소설이 주목받고, 이와 관련해 방각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이본이 많은 작품들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대하소설은 주요 연구대상에 끼어들기 어렵다. 변화한 조선후기의 현실을 담고 있지도 않고 지배층의 새로운 현실인

---

맹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배경까지 중국에다가 중국의 실존인물까지 등장시키며 전통적인 유교관념만을 주장하는 소설이라면,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굳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택은 이러한 관점에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소설 이해 관점을 모색한다. 먼저 엘리야테 등의 종교 사회학 이론을 원용하여 조선후기 소설을 성과 속의 스펙트럼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성/속은 중세/근대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 따라서 성에 속하는 신성소설과 속에 속하는 세속소설 사이에 가치의 우열은 무화되어 버린다. 곧 대하소설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적 반동성’의 문제는 표면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대하소설의 세계관적, 존재론적 기반을 탐색하여, 그것이 한갓 반동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도가인식과 연결된 의미 있는 세계관이며, 존재론임이 밝히고 있다.<sup>10)</sup>

이는 근대적인 가치가 회의되는 현시점에서 다시금 음미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대하소설 연구자라면, 대하소설 연구의 의의와 관련하여 다시금 질문하고, 새롭게 모색해야 할 주요한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택의 이러한 연구는 서사론적 탐색이 아니라, 정신사적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인 특징을 서사론적인 맥락에서 해명하기보다는 작품 이면에 숨겨져 있는 존재론, 세계관을 해명한 연구인 것이다. 이는 논문의 부제가 “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때 구조는 존재론적 특징을 해명하기 위해 밝힌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원용한 구조주의적 방법 역시 서사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을 해명하는 존재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가 사용한 순차구조는 프로프의 민담 분석에서 사용된 것처럼 기능에 따른 순차구조가 아니다. 방법론적으로는 프로프와 레비스트로스를 차용했지만,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10)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사론」, 『고전문학연구』 1집, 1971.;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사상대계』 1, 1973.; 이상택, 「취유부벽경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프라이의 원형비평적 성격이 강하다. 일대기적 원형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청난 분량의 장편소설을 연구하는데, 설화의 분석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구조주의적 방법을 차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많은 서사적 장치와 서사전략이 있는 장편의 기록문학적 특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사론적 분석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 탐색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정신사적, 존재론적 의미 탐색에 있어서는 신화 해석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택이 정신사적·존재론적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한 서사구조 분석은 이후 좀 다른 방향으로 계승된다.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어지지 않고, 다만 서사구조 분석의 틀만을 차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원적 대칭구조를 추출하던 방법적 틀은 계승되지 못하고, 다만 통시적 순차구조의 분석틀만이 차용될 뿐이다. 그리고 순차구조(순차구조라기보다는 어쩌면 서사골격의 제시에 가깝다)의 수준에서 추출되는 인물의 갈등을 살피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따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가문의 창달과 번영”이라는 가문의식의 재확인, 혹은 구조적 반복의 원리로 대표되는 분량 확장 기법의 재확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대하소설 연구는 대상 작품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sup>11)</sup>

이러한 문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의 부족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문학현상을 탁월하게 해명하는 방법론이란 없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성격,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하소설 연구는 이상택이 존재론적인 탐색을 위해 사용한 방법론을 단순

11) 서인석,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1997』, 국문학회, 1997.; 송성욱, 『한국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15면.

히 주제론적인 맥락에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연구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sup>12)</sup>

3.2 물론 대하소설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방법론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슷비슷한 결론 도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위 양식을 탐색하여 대하소설의 다양한 층위를 해명하려는 연구도 있었고<sup>13)</sup>, 대하소설의 독특한 특징인 연작화의 경향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sup>14)</sup> 하지만 개별 작품론이나 대하소설 일반론에서 기존의 연구 경향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제기와 그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방법론적인 모색이 그리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학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나름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모색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구분기, 송성욱, 정병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대하소설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대하소설 연구 경향에서 지적할 점은 항상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에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순차단락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인물이나, 공간(가정, 가문, 국가), 갈등 양상 등을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 서사구조 분석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서사구조 분석에서 도출되는

12) 또한 이상태의 방법론은 다른 작품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비록 <명주보월빙>이라는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시켰지만, 그 연구는 대하소설 전반의 세계관적, 존재론적 기반(물론, 도가적 조원주의와 유가적 조원주의 사이의 거리는 있지만)에 관한 통찰을 제시하여, 개별작품의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프라이의 원형비평적인 방법론이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분석 방법론이 지닌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하겠다.

13) 임지균, 「연작형 삼대륙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조용호, 『삼대륙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조광국, 「벌열소설 향유층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11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의 양식적 성격」,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8.;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1999, 국문학회, 1999.; 지연숙, 「여와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결론은 대개 “가문의 창달과 번영”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는 항상 비슷하게 사용되는 ‘서사구조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서사구조 분석 방법을 갱신하여 새로운 서사구조 분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구조 분석 방법을 폐기하고, 다른 방법론적 모색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다.

3.3 송성욱은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한 연구자라면, 정병설은 두 번째의 길을 취한 연구자이며, 그리고 구분기는 세 번째의 길을 모색한 연구자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송성욱의 방법론적 모색과정을 살펴보자.

송성욱<sup>15)</sup>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많은 대하소설을 한자리에 놓고 방법론적인 모색을 진행하였다는 데 있다. 한두 작품의 특징적인 면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하소설 전체의 서사문법을 해명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곧 대동소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유형적 성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나아가 개별 작품의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해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때 송성욱이 취한 방법은 일련의 대하소설을 대상으로 ‘단위담’을 추출하고 그것이 결합되는 방식을 살핀 것이었다. 그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현씨양옹쌍린기>,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옥원재합기연>, <옥난기연> 등의 9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6가지 유형의 단위담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단위담의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작품에 따른 변이양상을 파악하고, 유형 내부에서의 하위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단위담들이 혼사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통합된 국면을 보여주어, 한 작품에서 각각의 단위담들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단위담이 한 작품에서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크고 작은 단위담이 일정하게 교차한다는 단위담 배열의 원칙, 단위담 사이

15)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에 잔치, 혼사, 과거 등의 독립단락을 삽입하여 완급을 조절하고, 각 단위담은 친철히 마무리하며, 동시에 각 단위담들을 교차적으로 서술한다는 서술 원칙 등을 밝혔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 대하소설은 단위담이라는 유형을 설화의 단락처럼 사용하여 구성되는 서사구조를 지녔음을 해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방법은 프로프의 민담형태론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비록 단위담과 기능function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출된 것이지만, 단위담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대하소설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31가지 기능의 일정한 배열로 마법담fairy tales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한 결론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이론에 입각할 경우, 개별 작품의 특성이 상당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대하소설을 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설은 아마도 양식화된 줄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양식화된 줄거리와 인물, 주제를 지닌 대중소설과 같은 작품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6)</sup>

사실 우리 대하소설은 분명 유형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작품이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생산되었다고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작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모방작이 산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또한 그 모방의 대상이 된 작품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선후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모방하지만, 모방할 수 없는, 모방하지 않는 무엇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송성욱의 연구는 이러한 작업에 앞서 먼저 전반적인 특징을 해명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대하소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적 성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이후 개별 작품의 자기 개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언급했듯이 이러한 대하소설의 서사문법의 탐구는 주제적 의미와 관련하여 진행되지 못했다. 프로프는 기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에, 원천적으로 주제

16) 만약 모든 대하소설이 이와 같다면, 대하소설 연구는 본격 문학 연구보다는 문화 연구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작품에 투영된 의식을 분석하기보다는 당대 '대중'문화의 특성 혹은 풍속사 연구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적 탐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연구방법이지만, 송성욱의 경우는 단위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주제적 의미와 관련한 서사문법의 탐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지닌 단위담이 각기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생성하느냐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면, 천편일률적이라는 대하소설 연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4 송성욱이 기존의 서사구조 연구의 문제점을 새로운 서사구조 연구 방법으로 갱신을 시도하였다면, 정병설은 서사구조 분석의 연구를 지양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정병설이 지향하는 연구 방법은 수사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 연구에서 그가 힘써 탐구하였으며, 연구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2장 문체의 특징과 의미”와 “제3장 장면전개의 특징과 의미”이다.<sup>18)</sup> 이 부분은 기존의 서사구조 분석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사실 소설은 주요화소의 전개만으로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토마세프스키에 따르면 하나의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화소가 공존한다. ‘관련화소 bound motif’와 ‘자유화소 free motif’가 그것이다.<sup>19)</sup> 관련화소는 사건의 인과관계와 시간적 순서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유화소는 생략되더라도 줄거리의 진행에는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화소는 서사적 논리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서사적 중요성에서 관련화소에 비해 중요성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홍명희의 『임격경』의 경우, 달래나보지, 이몽학, 최영 관련 이야기 등의 옛이야기는 서사적 논리에는 별반 역할

17)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 탈가문 소설적 시간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1999.

18) 특히 3장은 이전부터 연구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부분이다. 이는 그의 석사논문과 「고소설의 서사과정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19) 보리스 토마세프스키, 「주제론」,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한기찬 역), 월인재, 1980, 105-106면.

을 하지 못하지만, 『임격정』의 의미와 매력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병설은 대하소설에서 ‘자유화소’적인 요소, 곧 서사적 논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작품 의미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통해 나타난다. 이때 장면전개는 장면묘사나 休止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사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부분과 이 부분이 실현되는 전 과정까지 아울러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월회맹연>의 경우, 이 장면전개의 과정에서 주로 가족화합이나 예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했다. 전체적인 서사구조에서 추출될 수 없는, 유학의 예적 질서의 토대 위에서 구현된 가족화합 또는 가족적 질서의 확립을 <완월회맹연>은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작품의 언어, 화법, 서술 수준에서의 문체 분석을 통해 문체적 특징과 서술자의 서사전개기법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옥원재합기연>을 다루면서 기존의 서사구조 분석에서 다루어질 수 없었던, 인물의 성격 갈등 분석과 가상작가의 채용을 통해 새로운 시점 형성의 과정을 다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병설은 기존의 연구방법인 서사구조 분석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하소설은 무엇보다도 기록문학의 총화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수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서사구조 분석 방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대하소설의 특성을 장면전개, 문체, 시점, 인물성격 등을 통해 해명하려는 방법론적 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수사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대하소설 연구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대하소설의 미학과 관련하여 의문이 남는다. 수사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해명되는 대하소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근대소설에서 플롯보다는 인물성격화가 더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존의 유형화된 인물들로서는 삶의 문제를 서사에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옥원재합기연>에서 성격갈등을 통해 새로운 인물형상을 마련했다면, 그 속에 담고 싶어 한 새로운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 또 시점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전지적

시점은 절대적 권위를 통한 일방적인 계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가상작가를 통해 제한적인 시점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절대적 권위를 지닌 관점이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하소설이 시점의 인식 속에서 부정하는 절대적 관점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쩌면 이는 愚問이며,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고전소설 연구에서 서사구조 분석은 존재론이든 주제론이든 작품의 의미를 찾는 작업과 연결되었다. 우리 소설 연구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그 핵심을 차지했다고 할 것이다. 수사학적 접근과 함께 여전히 포기하기 어려운 주제(내용)론적 접근을 담아내는 방법론적인 고민 또한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5 구분기의 방법론적 모색은 송성욱과 정병설의 방법론적 모색의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기는 작품의 서사적 골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따지는 작업만을 진행해온 그간의 연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작품에 분석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신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신의 탐구는 일단 유가의 출처관과 관련한 문화의식에 집중된다. 다루고 있는 작품은 <옥루몽>, <만하몽유록>, <옥호빙심>이다.<sup>20)</sup>

구분기의 방법론적 모색은 ‘서술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는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전개양상이나 법칙성에 대한 탐구를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기존 연구의 경향이며, 이에 대한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서사 전개에 필수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지만 작품의 미학적 특성에 의미 있는 기능을 하는 요소들의 진술”인 서술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론적 모색을 주장하였다.

특히 <옥호빙심>의 경우는 부분적이며 독립적인 요소의 진술인 서술이,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20) 구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선비의 진퇴의식 — 옥루몽과 만하몽유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구분기, 「유가의 출처관과 옥호빙심의 구조적 이원성」,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지니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나 창작방식에 의미 있는 기능을 하기에, 서술에 구조의 개념을 적용한 ‘서술구조’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서사적 유형성을 띠는 서사구조와 관념적 사변성을 띠는 서술구조의 이원적 병렬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대하소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서사구조 측에 편향된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서술구조 측이 발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탐구, 나아가 두 축의 이원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한 통합적 해석의 추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은 기존의 대하소설 방법론의 반성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분기에 의해 제기된 서술(구조)에 대한 주목은 정병설의 장면 전개에 대한 주목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곧 ‘자유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해 우리 대하소설의 의미와 미학을 탐색하는 작업이라는 동질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구분기의 서술(구조)이 등장인물의 사변적 진술과 그 사변적 진술들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만을 문제 삼고 있다면, 정병설의 장면전개는 구분기의 ‘서술’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사전개가 핵심이 아닌, 서사전개가 완만히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서사적 진행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대하소설의 미학과 의미 실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유화소’적인 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서술구조’라는 방법론적 틀보다는 ‘장면전개’라는 방법론적인 틀이 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술(구조)’에서 추출되는 것은 주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진술만을 의미하기에, 사변적인 진술이 아닌 다른 ‘자유화소’적인 요소를 포착하는 데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기의 방법론적 모색의 의의는 다만 자유화소적인 요소인 ‘서술구조’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서사구조와 서술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하소설 연구에서 설사 ‘서술’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서사구조에 종속시켜 대하소설의 의미 층위를 일원론적

으로 단순화시키는 기존 연구 경향과는 달리, 서사구조와 서술구조의 이원적 구조를 지닌 대립적 총체로서 대하소설을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대하소설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의 방법론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6 이상으로 대하소설의 방법론적인 모색을 송성욱, 정병설, 구분기의 연구에서 찾아보았다. 송성욱의 경우는 기존 방법론의 갱신적 성격이 강하다면, 정병설은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적 성격이 강하고, 구분기는 이들을 아우르려는 방법론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서사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제론적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곧 보수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소설이라는 기존 인식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택이 존재론적 질문, 그리고 가치의 상대화를 통해 기존 인식에 대해 대결하려는 모색의 과정을 보았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후의 연구자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될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고전소설 연구자인 필자 역시 이에 대한 별반 해답을 지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한 현실, 근대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지금, 대하소설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존재론적 질문이 다시금 제기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어찌면 변화한 현실에서 대하소설이 저야할 짐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관소리계 소설, 영웅소설 등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에 대한 반박으로, 너무 단선적인 소설인식에 대한 반박으로 대하소설이 자리할 수는 없을까. 대하소설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담을 수 있지는 않을까.

시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장면전개를 통해 전체 서사구조에 통합되지 않는 일상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쟁적 부면을 직접적인 언술을 통해 제시하고, 나아가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맥락에서 결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통합적으로 찾는 작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 구분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선비의 진퇴의식 — 옥루몽과 만하몽유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 구분기, 「유가의 출처관과 옥호병심의 구조적 이원성」,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 김병국, 「고대소설 서사체와 서술시점」, 『현상과 인식』 16호, 1981.
- 김병국, 「구운몽 연구—환상구조의 심리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68.
- 김진세, 「쌍천기봉 연구」, 『관악어문연구』 1, 1976.
- 김진세, 「완월회맹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김진세, 「이조연작소설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집』 5, 1973.
- 김진세, 「현씨양옹쌍런기 연구」, 『서울대교양과정부논문집』 4, 1969.
- 서대석, 「군담소설 출현동인 반성」, 『고전문학연구』 1집, 고전문학연구회, 1971.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서인석, 「소설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1997, 국문학회, 1997.
- 송성욱, 『한국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15면.
-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1999, 국문학회, 1999.
- 송성욱, 「혼자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이상택, 「<춘향전>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66.
-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고전문학연구』 1집, 1971.
-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사상대계』 1, 1973.
-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 임지균, 「연작형 삼대륙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 정병철, 「고소설의 서사과정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정병철, 「옥원재합기연 —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1999.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조광국, 「별열소설 향유층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11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집, 1969.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 지연숙, 「여와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89.
-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의 양식적 성격」,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최진원, 「<춘향전>의 합리성과 불합리성」,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 보리스 토마세프스키, 「주제론」,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한기찬 역), 월인재, 1980.

On research methodology and aspect in studies  
of Korean classical Novel

Ryu, Jun—kyoung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new possibilities in Korean classical Novel studies throughout critical investigations into research methods and aspects of Korean classical Novel.

In recent years the studies of Korean classical Novel have quite increased in quantity but would not have developed in quality. The reason of these conditions would be in absence of communications among scholars as a result of individualization of researches. So common issues beyond individualization are needed.

And in this paper mainly new attempts in research methods and aspects on the roman flueve in Chosun Dynasty period were looked into. As representative scholars Prof. Song(Song Sung—Wook), Prof. Jung(Jung Byung—Seol), and Prof Koo(Koo Bon—Gi) would we make a subject of discussion. Prof. Song tried to look into new possibility in studies of Chosun's the roman flueve according to succeeding to preceding academic achievement in studies of Chosun's the roman flueve. Prof. Jung tried to device new methodology for studies of Chosun's the roman flueve. Prof. Koo tried to look into new possibility in studies of Chosun's the roman flueve by combining preceding academic achievements with new methods in studies of Chosun's the roman flueve.

Keywords : Korean classical Novel, methodology, aspect, the roman flueve